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 완치 잔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은 최근 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소아암환경보건센터와 호남권학구난치성질환센터의 후원으로 제9회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질환 완치 잔치'를 열었다.

적십자사 '새터민자문위원회' 위촉장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는 최근 지사 회의실에서 새터민의 국내정착과 상담지원을 위해 동신대 한방병원과 협력기관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에게 '새터민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록청소년 육영회 전남도지회 장학금 전달



청록청소년 육영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김성복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교장)는 지난 13일 목포 하동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관내 학생 32명에게 1천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수시 공무원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여수시립국립극장(오른쪽)은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 1천64만9천910원을 지난 13일 서정훈 여수시장에게 전달했다. <여수시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백병원(성용실업 대표)·박경자 씨 장남 장성(모아건설)군 서영환(전 화순군의회의원)·김복님씨 삼녀 후형양=16일(토) 오후 1시 농성동 메리어트 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공일용·김정희씨 장남 동연군 이운복·양동숙씨 장녀 수영양=16일(토) 오후 2시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최찬수·신금순씨 장남 봉관군 이효돈·최양자씨 막내 경린양=17일(일) 오후 11시40분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고운홀)

▲안중일(전 광주시 교육감)·김인수씨 아들 선우군 방기환·성민여씨 딸 명주양=17일(일) 오후 1시 삼무 리츠컨벤션웨딩홀(1층)

동창·동문회

▲송원고 제11회 동창회(회장 황명성) 정기총회=15일(금) 오후 7시 낙지한마당. 062-381-5559.

▲복성중 신년 하례 및 이·취임식(회장 이홍기)=15일(금) 오후 6시 30분 프리도 호텔 3층 연회장. 062-651-6296, 010-6455-6296.

▲재광문태종·고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16일(토) 오후 5시30분 아이리스웨딩홀(공항방면)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동문회(회장 김운기) 월례모임=22일(금) 오후 7시 동구 계림동 계림수산회직판관. 016-611-2858.

▲고씨광주증문화회(회장 고석태) 신년하례식 및 종문화관 협판식=

16일(토) 오전 11시 북구 중흥동 종문화관. 062-367-9585.

▲경주김씨 2010년도 정기총회(회장 김두석)=16일(토) 오전 11시 복지법인 인애동산 강당(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 인근. 062-651-6296, 010-6455-629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한국임업후계자협회 = 15일(금) 오후 5시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2층연회장.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국립나주병원 지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어여로비.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혁신형 종사자. 문의 061-330-4169.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환경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다카사키 영화제는 3월27일부터 보름 동안 남부 군마현에서 열리는 지역 영화제다.

그는 또 "전남 지역과 유사한 스웨덴의 한 지역과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싶다"고 언급한 뒤 "특히 투자유치와 복

지분야에서 양 지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바리외 대사는 "이번 전남 방문중에 전남의 유명 관광지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고 답했다. 바리외 대사는 앞서 부인과 함께 천연염색문화관, 죽설현과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그는 이어 "자동차회사, 의료용품, 재활보조기구 회사 등이 전남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스웨덴 대사 방문을 계기로 스웨덴의 의료용품 제조·판매 회사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사 투자 유치, F1대회의 스웨덴 자동차 회사 참여, 스웨덴 도시와의 우호 교류 협력 협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들이 모집=장구, 징, 펙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소방관서 향토사진작가로 제2인생...고향 장흥 앵글에 담는 마동옥씨

“고향 잊은 사람에게 제 사진은 추억 연결하는 매개체”

교도관과 소방관 등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고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있는 작가가 있다.

주인공은 사진작가 마동옥(52)씨. 취미삼아 자신의 고향 장흥군의 풍경과 사람들을 모습을 활용하기 시작하게 어느덧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안정된 직장 대신 선택한 험난한 작가의 길이지만 고향의 모습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살았던 고향의 모습이 자꾸 변하잖아요. 건물도 허물어지고 사람들도 늙어가고..." 게다가 장흥에 탐진데이 건설되면서 수몰되는 곳이 생겨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곳도 생겼어요. 고향을 잊어버리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제 사진은 추억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셈이죠."

마 작가는 지난 1979~1982년까지 교도관으로 활동하다 1986~1990년에는 소방관으로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중·고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일은 안정된 직업이었지만 늘 제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취미로 한 사진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특히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초라해진 고향 농촌의 모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다. 농촌의 붕괴는 우리나라 어디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에 장흥의 풍경에서 사람들의 고향을 떠올리지 않을까하는 바람에서였다.

이에 그의 사진은 풍경을 멋스럽게 찍거나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고향을 담백하게 활용한다. 인물도 마찬가지다. 속옷을 입고 터덜터덜 걸어가거나 주름이 깊어 채 담배 피고 있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모습 그대로를 찍었다.

그 중 그가 지난 1997년 발간한 '아 물에 잠길 내 고향' 전시회는 우리나라 수몰지역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땅이 많이 건설되면서 끊어지거나 물에 잠겼지만 그 지역에 대한 보존 자료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마 작가는 그 이후부터 전시회를 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턱에 그 이후부터 점부자원에서 수몰지역 자료 보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기 시작했다.

"고향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장흥 또한 그런 적을 겪은 적이 있어서 밭벗고 나선 게 조그마한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도 10여 차례 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이지만 400여 곳의 장흥 마을 곳곳을 수십 여년간 수차례 돌아다니며 활동만 하다보니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다. 서울에 스튜디오도 열어보고 고향에 사진관이며 분식집 등을 하며 활동비를 냈지만 이미지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오래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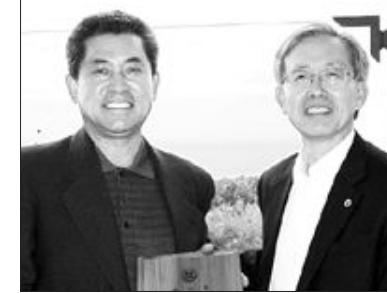
현재는 친한 고향 선배인 소설가 한승원씨와 친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장흥에 '빛 그림자'라는 레스토랑을 차렸다. 바쁜 시간대에는 아내와 같이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쳐메고 장흥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 작가는 "20여년 동안 30만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최근 전시회에는 100분의 1밖에 담지 못한 만큼 장흥군읍·면별로 사진집을 별도로 내고 싶습니다"며 "농촌에 사는 노인분들의 얼굴 사진을 모은 '남도의 얼굴' 전시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재미사업가 전남대 발전기금 1만달러 기탁

유영봉 코암브라 회장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사업가 유영봉 회장(Koambla, Inc.·사진 왼쪽)이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1만달러(한화 1천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유 회장은 지난 11일 미국 LA에서 김윤수 총장 일행을 만나 "전남대가 글로벌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마음을 보태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며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유 회장이 이끌고 있는 코암브라(Koambla)사는 형가리, 캐나다, 브라질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미주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U.S.C. (Unifide Service Center)를 통해서 콜센터, 기술지원, 제품 재활용 등 통합된 공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바리외 주한 스웨덴대사는 13일 나주 천연염색문화관, 죽설현 등을 둘러본 뒤 전남도청을 방문, 박 지사와 양 지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송철한 광주과기원 교수

ACP 편집위원에 선정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송철한 환경공학과 교수가 최근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ACP(대기화학 및 물리학 회지·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CP는 EGU(유럽 지구과학 연합)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대기화학 및 대기학 분야에서 해마다 1~2위를 다투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술지(impact factor·논문영향력지수 4.927)로 알려져 있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EGU로부터 학문의 열정과 깊이를 인정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국민은행 ◇지점장 ▲광양 오재근 ▲나주 임성진 ▲생촌동 박근숙 ▲송정 박경숙 ▲양산동 양영호 ▲여수 여서동 민을홍 ▲용봉동 고현국 ▲첨단 이정은 ▲목포 하당 전동식 ◇기기입금융자점장 ▲광산 정왕식 ◆광주 김석진 ▲목포 이국선

차)·중덕(자영업)·순임·순녀·금님·순호씨 부친상 김재환·이재욱·정성우(전대병원 총무과)·김순호(서울시공무원)·윤영선(소방공무원)씨·빙부상=발인 16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순씨 별세 이유기·권기·선순·정순·재금씨 모친상=발인 15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광수씨 별세 혜재·현세·정례씨 부친상=발인 15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3-227-4000.

▲문화실씨 별세 강석·점숙·점임씨 모친상=발인 15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부음

▲국성환씨 별세 종관(기아자동화) 1566-4499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